

‘시민이 행복한 김제, 스마트 의회’ 구현 주력

제9대 후반기 김제시의회(의장 서백현)는 2024년 7월 2일 새롭고 힘차게 출발했다.

후반기 의정 목표는 ‘시민이 행복한 김제, 최강 의회, 현장 의회, 스마트 의회’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치열한 의정활동을 펼쳐왔다.



김제시의회는 시민과 함께하는 현장 중심의 의정활동을 전개하며 민생 현안을 중점으로 한 입법 활동과 예산 심의를 통해 시민과 소통하는 의회를 구현하기 위해 노력했다.

시민이 행복한 김제를 만들기 위해 지난 6개월 동안 노력했던 의정활동과 각 상임위원회의 성과와 향후 각오를 살펴본다.

회기 운영 실적을 살펴보면 하반기 동안 총 5회, 65일간의 정례회 및 임시회를 통해 110건의 조례 및 기타 일반 안건들을 처리했으며, 이 중 27건의 의원 발의 조례 및 규칙안이 최종 의결되었다.

이는 자치 입법 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한 결과이며 임시회와 정례회 기간 동안 22건에 달하는 5분 자유발언과 건의안·결의안 채택을 통해 시정 전반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합리적인 정책 대안을 제시하여 김제시 발전과 시민 복리 증진을 위한 끊임없는 고민을 하고 있음을 보여준 결과로 분석되고 있다.

제284회 제2차 정례회 중 진행된 시정 질문을 통해 김제시민들의 권익 향상과 지역 발전을 위한 미래지향적인 정책 방향도 함께 제시했습니다. 시민들의 다양한 의견에 귀 기울이며 생생한 목소리를 의정활동에 반영하기 위해 노력했다.

지난 11월 14일부터 22일까지 9일간 진행된 2024 행정사무감사에서는 날카로운 질문으로

비효율적이고 불합리한 행정 사항 776건(시정 36건, 주의 74건, 개선 324건, 권고 271건)을 지적하며 모범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격려와 칭찬도 아끼지 않았으며 이를 통해 시민의 대변자 역할에 충실했다.

올해 마지막 회기인 제284회 제2차 정례회에서는 2025년도 김제시 예산안을 일반회계 1조 294억원, 특별회계 990억원으로 확정하고 이는 2024년도 본예산(1조454억원) 대비 6.94% 증가한 총 1조1,284억원이다.

특히 12월 3일 비상계엄 사태가 발생한 가운데 김제시의회 의원들은 본관 앞에서 성명문을 발표하고 윤석열 탄핵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 이는 김제시의회가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와 헌정 질서를 수호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여주며 지방자치의 수준을 한 단계 끌어올리는 역할을 충실히했다.

12월 14일에는 윤석열 퇴진 촛불문화제에 참여해 시민들과 함께 민주주의 회복의 기쁨을 나누었고 “이번 탄핵안 가결로 더 나은 미래를 위한 한 걸음을 내디뎠다”라며 앞으로도 시민들과 정의롭고 공정한 사회를 만들어 나가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서백현 의장 “시민과 함께 정책을 만들어가는 의회 구현”
서백현 의장은 “시민의 목소리에 응답하는



서백현 의장



이정자 부의장



전수관 위원장



문순자 위원장



오승경 위원장



최승선 위원장



김영자 위원장

지난 하반기 동안 정례·임시회 통해 조례안 등 총 110건 안건 처리 尹 탄핵 촉구 결의안 채택... 지방자치 수준 끌어올리는 역할에 충실

의회로 거듭나겠다”고 말하며, 의원 간의 소통과 협치를 통해 더 나은 김제시의회를 만들겠다는 다짐을 밝혔습니다. 또한 “2025년 을사년에도 김제시의회가 시민들과 함께하며 시민의 행복과 김제시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정자 부의장 “본연의 역할에 충실히 의회 구현”

이정자 부의장 또한 다양한 의정 경험을 바탕으로 시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살기 좋은 김제를 위한 정책을 제안하고, 안전하고 활기찬 김제를 만드는 데 기여하고 있다.

▲전수관 위원장 “진정한 지방자치 시대에 걸맞는 의회 실현”

운영위원회(위원장 전수관 의원)는 의원들의 의정활동 지원에 집중하며, 의회 운영 관련 조례와 규칙을 점검했다. 의원 역량 강화와 효율

적인 의정활동 환경 조성에 주력하여 의회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제고했다.

▲문순자 위원장 “시민 중심 행정과 공공 이익 증진 노력”

행정경제위원회(위원장 문순자 의원)는 시민의 목소리를 경청하며 공정하고 투명한 행정을 추구했다. 시정의 주요 시책 추진 상황과 집행 실태를 면밀히 감시·감독하고, 김제시 주요 사업에 시민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시민의 행복과 공공 이익 증진에 힘썼다.

▲오승경 위원장 “시민 안전과 윤택한 생활 환경 조성 노력”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오승경 의원)는 시민이 안전하고 윤택하게 생활할 수 있는 환경 조성에 중점을 두었다. 김제시 정주여건 개선을 위해 도시 인프라 시설 구축에 박차를 가하고, 도농 균형 발전을 위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

며 미래 세대를 위한 발전 방안을 모색했다.

▲최승선 위원장 “2025년도 본예산 철저한 심사 및 재정 건전성 확보 노력”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최승선 의원)는 12월 3일 비상계엄 사태라는 국정 혼란 속에서도 2025년도 본예산 심사를 차질 없이 진행했다. 부동산 시장 문화와 국제수입 저조 등 제한된 예산 환경에서 34억 원의 비효율적 예산을 삭감하고, 총 1조 1,180억원의 예산을 의결하며 재정 건전성 확보에 기여했다.

▲김영자 위원장 “시민 참여단 도입과 투명한 감사 운영 노력”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자 의원)는 시민참여단의 도입으로 더욱 투명하고 책임감 있는 감사를 진행하며 올바른 시장 운영과 대안 제시를 통해 시민들을 위한 발전적인 방향으로 시정이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했다.

2025년 김제시의회는 시민의 행복과 김제시 발전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며 앞으로도 시민과 함께하는 의회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다짐했다. /김제=곽노재 기자



전북의 역사·문화 유산

옛 전북의 구심점

전라감영

전라감영은 전라감사가 근무하는 관이라는 뜻으로, '완영'이라고도 불렀다. 완영이란 전주의 옛 지명 '완산'에서 나온 말이다.

조선시대 전라도는 지금의 전라남·북도과 제주도까지 포함한 지역으로, 이 모두를 총괄한 지방통치관서 전라감영은 조선왕조 500여년 내내 전주에 자리했다.

일제강점기에 들어와 전라감영 자리에 전북도청이 들어섰고, 2005년까지 전북 도청의 중심이 되었다.

전북도청은 행정만이 아니라 전북의 역사와 문화를 끌어온 전북의 구심점이자 견인차였다.



선화당

전라감영의 재창조

전라감영 복원 논의는 2005년 전북도청이 신시가지로 이전하면서 본격화돼, 2009년 전라감영 복원추진위원회가 구성됐고, 2014년 전라감영 복원 재창조위원회가 결성됐다. 복원을 앞두고 10여년간 계속된 지난한 논의의 핵심은 복원의 범위와 옛 전북도청의 근대문화유산으로서의 가치 문제였다. 복원 범위는 전제복원, 부분복원, 상징복원으로 나뉘었고, 옛 전북도청의 가치는 감영 터의 중추적 역사에서 어느 역사를 택하느냐 하는 문제였다. 결국 감영의 중심건물인 감사의 집무처인 선화당을 비롯한 전라감사 영역을 복원하는 것으로 결정돼 2015년 마침내 옛 전북도청을 철거하고 2020년 동면 부지에 감영 건물을 복원했다. <글: 전주시 제공>



관풍각



내아

전주매일 캠페인